



# '4·16'을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문화 예술 추모 움직임 활발








**추모소설집 등 잇따라 출간**  
24일 광주 메이홀서 시 낭송회  
지산동에서는 '아픈 세월'전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책과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화 예술로 그날을 기억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픔을 위로하고 한국 사회는 이제 세월호 '그후'와 '그전'이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들이다.

4월 들어 세월호를 주제로 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는 추모소설집이다. 소설가 심상대·전성태·방민호를 비롯해 이평재·이명랑·권영민·김신·손현주·한숙현·김산아·김은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소설집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괄했다.

심상대는 단편 '슬비야 비가 온다'를 통해 친구와 헤어져 심대를 보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전성태의 '가족 버스'는 어머니의 장례라는 내밀한 아픔을 통해 세월호의 비극을 환기시키며 이평재의 '위험한 아이의 인사법'은 세월호 참사 때 살아남은 아이가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그리고 있다.

'팬텀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현실문화)은 한국의 실천적 인문학자들이 김동춘, 전정환, 진태원 등 13명의 인문학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인문사회학적 충격과 한국사회를 정리한 책이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역사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의 목시', 권영아 동아대 국문과 교수의 '사건 이후의 인간학', 이광호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남은 자의 침묵' 등 13편의 글이 실렸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철학의 물음'

(이학사)는 철학자 이종진이 자신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철학적 질문을 던진 책이다. '세월호가 던진 물음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신자유주의', '세월호 이후를 보는 하나의 눈-존엄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 초에 출간된 책들도 눈길을 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미지북스)는 작가 오준호씨가 5개월 동안 33차례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을 기록한 책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펴낸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생각의 길),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의 '금요일에 돌아오렴'(창비)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발간된 '눈먼 자들의 국가'는 많은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계간지 '문학동네' 가을·겨울호에 실렸던 글을 모은 것으로 김애란·김혜숙·김연수 등 문인과 사회과학자 12명이 써내려간 추모 산문집이다.

역시 지난해 발간된 고은의 시 '이름 짓지 못한 시'를 비롯해 강은교·백무산·신현림 등 68명의 시인들이 함께 펴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도 많이 읽혔다.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 메이홀에서는 세월호 1주기 추모 시 낭송회가 열린다. 권영연, 나희덕, 한희원, 임의진, 이진희, 김성규씨가 참여한다.

한국작가회의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시낭송회, 영상 상영 등으로 이뤄지며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수록된 글을 작가들이 직접 낭송하는 시간도 갖는다.

서양화가 최재덕씨의 작업실에 자리한 광주 지산동 지산동 갤러리에서도 '아픈 세월'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최재덕, 김화순(서양화), 최병진(사진)씨 등 3명이 참여해 모두 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기억해야 할 세월호 관련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문의 010-8603-01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평등시대를 사는 스웨덴 아버지들

### 광주여성재단 사진전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엄마들이 출산 수당을 받고 있다. 1970년대 부터는 부모 보험을 도입, 일과 가정에 대한 남녀의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또한 성평등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직장가 가정 그리고 육아에 있어 양성평등한 참여를 추구해 오고 있다.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은 8층 'Herstory' 전시관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스웨덴 라이프 퍼즐 사진전'을 연다.

8일 오후 3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한달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스웨덴 가족의 일상을 촬영한 사진 24점이 전시된다. 특히 평등시대를 살아가는 스웨덴 아버지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광주여성재단 여성전시관 'Herstory'는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전시콘텐츠 개발과 여성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70-05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금면왕조'가 부러운 까닭은

### 〈金面王朝〉

비주얼 요소가 강한 상하이의 아트 서커스나 심전의 민속소외는 다른 탄탄한 스토리와 예술적 연출이 돋보이는 문화콘텐츠였기 때문이다.

베이징시내의 테마파크 '해피밸리'에서 연중 공연되는 '금면왕조'는 중국 고대 신화의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가무쇼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총지휘한 장에도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다 무대미술, 음향, 의상, 출연배우 200여 명의 환상적인 조화로 매일 두 차례의 공연에 수천여 명이 다녀간다.

사실 스토리는 단순하다. 금빛가면을 쓴 여왕이 다스리는 여인천하(금면왕국)에 어느 날, 남자들이 사는 남면왕국이 쳐들어온다. 두 왕조는 치열한 싸움 끝에 금면왕국의 승리로 끝나고 남면왕국의 왕은 포로신세가 된다.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이를 시기한 하늘의 저주로 대홍수를 맞게 되면서 금면왕조는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여왕은 자신의 몸을 던져 왕국을 구한 후 태양조(太陽鳥)로 부활해 금면왕국을 지켜낸다는 줄거리다. 얼핏 보면 사랑, 전쟁, 복수, 희생, 평화 등이 얽히고 설킨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다.

하지만, 금면왕조의 하이라이트는 모세의 기적과 맞먹는 일명 홍수신(scene)이다. 극의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무대 위에서 실제로 500여 톤의 물이 휘말리치는 장면은 객석을 삼켜 버릴 만큼 압도적이다. 기자일행을 안내한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공연 제작비만 무려 350여 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웅장한 스케일과 역동적인 무대 금면왕조를 '온리원(only one)' 콘텐트로 키워낸 것이다.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작품이 확정·발표됐다. 최근 예술극장이 내놓은 33편의 개관 페스티벌 라인업을 들여다 보면 동시대 현대공연예술의 발전지로서 연구, 무용,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를 녹여내는 융복합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중에는 아시아의 신화와 역사를 버무린 콘텐트들도 들어있어 '광주산(産) 금면왕조'가 탄생하지 않나, 하는 행복한 기대도 갖게 한다.

모쪼록 전당의 공연들을 관람하기 위해 국내외 관객들이 구름처럼 광주로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금면왕조'가 베이징 관광객들의 로망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말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린 '금면왕조'가 솔직히 부럽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 광주·전남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일 '2015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60곳을 선정·발표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은 인문정신 고양과 지역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립(무등)도서관, 강진군도서관, 광양시립중마도서관, 담양문화원,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전남도립도서관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세계 책의 날 행사, 책드림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중장기로드맵위원회 구성

광주문화재단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문화정책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중장기로드맵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첫 회의를 했다.

광주문화정책 중장기로드맵위원회는 원로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장, 학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소설가 문순태(전 광주대 교수)를 비롯해 황영성(전 광주시립미술관장)·최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손정현(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최규철(광주예총 회장)·윤만식(광주인예총 회장)·김성산씨(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중장기로드맵위원회는 광주문화정책의 기초가 될 광주문화정책의 철학,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 연구는 각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명동 정현철

###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함)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 단비플라워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 방수

## 전 | 문 | 방 |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복수 품목 확인하세요...

이앤지 미화복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